

# 청각장애 한계 딛고 지휘단에 서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이우연 지휘자·보컬리스트가 공연하는 모습. <이우연 제공>

## 보청기·음향 확대기 도움

### '비언어적 표현'에 집중

### 크로스오버싱어·지휘자로 활동

### 순천시KBS합창단 등 이끌어

### 최근 순천시 '가인의 길' 콘서트

“학창 시절 만곡비염으로 수술을 한 뒤로 갑작스레 ‘중증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올린의 하이음이 들리지 않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다 보면 불편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소리의 진동, 시각언어 그리고 연습으로 청음(聽音)의 한계를 극복해 왔습니다.”

청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온 지휘자가 있다. 전주에서 태어나 현재 광양 등지에서 크로스오버싱어·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연(62) 씨가 그 주인공.

전북대 환경공학과에서 공부한 이 지휘자는 건축물의 소음을 분석하거나 소리의 진동에 대해 연구하는 ‘소음공학’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던 까닭에 세부전공 중에서도 ‘소리’에 대해 흥미가 생겼다는 것. 이후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지휘를 전공했으며 전남제일대 언어치료학과 등에 입학해 음악과 소리, 언어 등에 대해 폭넓게 공부했다.

이 지휘자는 순천시KBS합창단, 여수광양 크리스토코랄, 순천 시빌레오케스트라를 비롯해 광양시 여성합창단, 보성 채동선합창단, 전주 화인합창단 등을 지휘해 왔다. 지난 18일에는 전남문화재단 ‘전남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순천

북합문화공간 청춘창고에서 콘서트 ‘가인의 길’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베토벤이 귀울음을 겪었음에도 오히려 예술활동에 진력했던 것처럼 청각장애는 나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됐다”며 “아주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는 행위가 오히려 선율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지휘자는 미약하게나마 들리는 소리와 함께 바닥과 공연장 벽면 등을 타고 흐르는 ‘진동’에 집중한다. 전체적인 악곡 전개를 파악하기 위해 온 몸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현악 주자들의 보잉에 앞서 손의 움직임은 미리 읽거나, 관악 파트에서 손가락 움직임 및 호흡법, 연주자들의 눈빛 등을 통해 청각장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보청기나 음향 확대기의 도움을 받으며 비언어적 표현에 집중하는 것이 그나마 취할 수 있던 최선의 지휘법”이라며 “이후로는 청각장애가 악화되지는 않아 생활도 적응했으며, 이제 예술과 더불어 행복하다”며 웃어 보였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곡. 한동안 바로크 시대 절대음악 등에 심취해 여러 곡들을 공연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왔다.

“내 인생 지금부터야 내 인생 지금부터지/(-)/



이 지휘자가 순천 전국무용제 ‘자연속의 춤’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장면.

힙합 산 넘어 왔잖아 그래 지금부터야/ 험한 바다 건너왔잖아 그래 지금부터지(이우연 ‘지금부터야’ 중에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지휘자는 순천시 시민대학이나 광양청소년문화센터, 순천교도소 등에서 보컬클래스 강사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 4년여 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은 노래 ‘지금부터야’를 발표하면서 보컬트레이너 및 크로스오버 싱어로도 이름을 알렸다.

이밖에도 ‘음악 해설사’로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남 극동방송 ‘힐링 프레이즈’, 순

천 KBS방송 ‘행복한 음악여행’ 등에 출연, 클래식 음악의 전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끝으로 미래 목표에 대해 묻자 “청각장애라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과오 없이 음악인으로 살아온 데 감사할 뿐이다”며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지금처럼 꾸준히 무대에 설 수 있었으면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육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가진 이들과 음악을 나누고 싶은 꿈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

# 특정한 패턴 동일하게 반복...작가 4인의 '재생'

## 권수연·박한빛·조선아·한아름

### 22일~9월 24일 주안미술관

요즘 들어 자주 듣는 말 가운데 ‘재생’이라는 단어가 있다. 사전적 의미의 재생은 낡거나 버리게 된 물건을 가공해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생물체의 경우는 상실된 일부가 다시 자라는 일을 일컫기도 한다.

예술적 의미에서의 재생은 특정한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의 리듬과 작가의 사유가 발하는 특유의 미를 감상할 수 있는 묘미가 있다.

권수연, 박한빛, 조선아, 한아름 작가 4인이 ‘재생 Re:play’를 주제로 전시를 연다. 주안미술관서 오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작가들의 작업세계를 한 자리에서 보다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작업라운지 4rd’로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반복과 운율을 작가 저마다의 관점으로 구현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박한빛 작가의 ‘밤’은 무수히 많은 네모의 칸을 배경으로 구현한다. 청색의 바다 너머 노랗게 반짝이는 마을들, 향기를 안온하게 감싸 안은 산들은 일견 평범한 풍경이다. 그러나 한지에 끊임없이 덧칠한 색과 선은 밤의 이미지를 두터우면서도 파스하게 보이게 한다. ‘새벽을 기다린다는 것은 반복과 중단 없는 정진 외에는 없음을 묵직하게 말하고 있



한아름 작 'network13'

는 듯하다.

한아름 작가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축이 돼버린 네트워크를 모티브로 작품을 선보인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또 다른 그룹과 연대하고, 네트워킹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확장한다. ‘network13’은 무수한 조각처럼 나뉘고 구획된 네트워크의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복잡하면서도 도회적인 패턴은 그만큼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권수연 작가는 의자라는 모티브를 매개로 집단에서 살아가는 나를 표현했으며, 조선아 작가는 자연이 주는 반복적인 순환과 질서를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한편 송진주 학예사는 “이번 전시에서는 네 명의 작가들이 자신만의 미학적 방식으로 ‘재생’의 의미를 구현했다”며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생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 '뽕야' 공연 장면.

<ACC 재단 제공>

# 파란의 현대사 극화...넓은 '장충' 한 자루

## ACC재단 '뽕야' 공연...9월 28~29일 예술극장

충신이 긴 충을 일컬어 장충(長銃)이라 한다. 권총과 달리 어깨에 대고 쏘는 긴 충으로 소총을 비롯해 기총, 산탄총 등이 있다.

넓은 장충을 모티브로 우리 현대사를 극화한 작품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9월 28일(오후 6시), 29일(오후 2시) 연극 ‘뽕야’를 선보인다. ACC 예술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ACC 초이스’ 공연으로 기획됐다.

작품은 김은성 작가가 썼으며, 김태형 감독이 연출했다. 지난 2022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으로 초연된 이후 2023 ‘한국연극 베스트’ 선정과 ‘제1회 K-시어터 어워즈’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작품은 장충한 자루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한국 역사를 관통하며 파란만장한 시간을 견뎌왔던 ‘장충의 삶’을 초점화한 것. 연극은 역사를 ‘씨먹을’ 공리만 하던 드라마 작가가 역사를 ‘관통한’ 장충을 만나며 벌어진 일들이 계기가 됐다.

관람권은 R석 6만6000원, S석 4만4000원이며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 참조.

오래된 문화예술사업팀장은 “이번 작품은 우수 공연을 발굴, 초청하는 대중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됐다”며 “뽕야라는 제목처럼 우리 현대사를 관통해 온 넓은 장충이 지니는 의미와 지난한 역사 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구환경 지키는 문산마을공동체 예술가들

## 광주문화재단 '광주예술로' 참여...지구송 챌린지·뮤지컬 등 활동

오늘날 기후 위기는 세대와 지역, 국가를 넘어 모든 이들의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남획은 되돌릴 수 없는 부메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술인들이 마을 공동체와 함께 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목을 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의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광주예술로' (광주예술로)에 참여하는 문산마을공동체(대표 박태규)와 예술인 5명이 그 주인공.

5명의 예술인들은 스스로를 '에코자이저'라 명명한다. 에너지 전환운동에 주력한다는 의미이다. 에코자이저에는 마당극 배우 김혜선을 비롯해 한국화 작가 오창록, 작곡가 김정은, 싱어송라이터 기드온, 영화평론가 박정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채롭게 진행된다.

먼저 공모전을 통해 만든 '우리동네 지구송(작곡 장지혜, 작사 장지혜, 장애란)을 홍보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운동을 펼치는 마을활동가들의 삶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9월 중 유튜브 '문산tv'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월 22일 열리는 '에너지의 날'에는 마을 주민들과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지구송 챌린지'를 진행한다. 소등 캠페인 등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등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하는 뮤지컬도 제작할 예정이다. 주제부터 이목을 끄는 '나는 심정이다'는 중2병에 걸린 심정과 오염된 환경으로 눈이 멀어버린 심학규가 등장한다. 여기에 힙한 용왕, 무엇이트든 어렵게 알려주는 돌돌박사 등 개성적인 인물들을 등장시켜 재미와 주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복안이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칼럼을 SNS에 게재하는 활동도 펼친다.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는 박정수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활용과 민주주의', '친환경적인 소비', '동물과 공존하기' 등을 주제로 작성할 예정이다.

노희용 대표이사는 “이번 광주 예술로에 참여하



문산마을공동체 협업 활동팀 활동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는 '에코자이저'는 문산마을공동체와 함께 에너지 전환 운동을 비롯해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활동을 펼친다”며 “무엇보다 문화예술 각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참여해 예술의 관점에서 지구환경을 살리는 실천적 방법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예술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지난 4월 예술협업팀 구성을 통해 10개 기업·기관과 50명의 예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영화 '샤인' 감독·PD와 이야기 나눠요

## 광주극장 22일 GV 행사

지난달 개봉한 박석영 감독의 영화 '샤인'은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여섯 예선(장혜금 분) 앞에 버려진 여섯 살 새별(송지은)이 나타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마음을 담았던 예선이 스티라, 라파엘라 수녀 등의 위로를 통해 웃음을 찾아가는 서사는 가슴에 울림을 남긴다.

광주극장이 '샤인' 관객과의 만남(GV) 행사를 오는 22일 오후 7시에 진행한다. '샤인'을 연출한 박석영 감독이 참석하며 조영각 PD가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주인공 예선 앞에 나타난 새별은 제주에서 오갈 곳이 없던 터라 안쓰럽게 보인다. 예선은 주변인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그녀를 보호한다. 두 사람은 한여름날 낯익은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행복할 시간이 가득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새별을 버렸던 전업마가 두 사람 앞에 갑작스레 나타나면서 혼란을 겪는다.

고통 끝에 인물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시놉시스에는 인간의 의지와 희망을 떠올리게 한다. 제주 북촌마을을 배경으로



영화 '샤인'

한 바다 풍경과 모녀의 만남, 헤어짐의 과정도 이목을 사로잡는다.

영화에는 광주 출신 배우 장진이 출연한다. 장씨는 영화 '소통과 거짓말'을 통해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장진은 “모든 인물들을 천천히 사려 깊게 바라보는 시선이 돋보이는 영화”라며 “빠르고 자극적인 정보가 가득한 시대에 꼭 필요한 작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디트릭스 예매. /최루빈 기자 rubi@kwangju.co.kr